

임수연 부장님, 변서영 대리님

명절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?

돌이켜보니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일을 했을까 스스로 믿기지 않기도 합니다. 좋은 팀웍을 받쳐 주는 두 분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커미셔너와 예술감독을 이원화한 시도는 현재로서는 아주 잘한 일입니다. 그러나 제도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10여년전 정기용선생님을 도와 한국관을 만들 때를 생각하면 고려시대에서 현대로 넘어온 듯 해요. 특히 두 분이 전시의 형식뿐만 아니라 전시의 내용을 공감하고 함께 해주신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었다고 생각해요.

용적률 게임으로 밖에서 화두를 던졌으니, 내년 2월 서울에서 진일보한 담론, 공감, 비평이 이어졌으면 합니다. 두 분과 한배를 탄 것이 큰 행운이라 생각해요. 너무 감사합니다.

짧지만 명절 꼭 쉬시고요. (시월드, 친척들 결혼 등등 잔소리 빨리 벗어 나셔서요 ㅎㅎ)

김성홍드림